

“축제 전 꽃 떨어질라” 전남 지자체 노심초사

22개 시·군 봄축제만 40여개…봄꽃 이른 개화에 속 태워
벚꽃 주말 절정·영취산 진달래 만개…나주 배꽃 ‘바람 걱정’

100개. 올 한 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다. 특히 봄꽃이 꽃망울을 터트리는 3월부터 만개한 5월까지 열리는 축제만 43개나 된다. 여행객들은 봄꽃 축제가 개화 시기에 맞춰 일정을 잡아놓는 점을 들어 축제 일정을 따라 이동 동선을 짜는 경우가 많다. 매화→벚꽃→진달래→철쭉 등 계절에 맞춰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이상 기온으로 ‘봄꽃 엔딩’이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당장,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리는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 축제’ 장소인 강진군 작전면 일대 금곡사 벚꽃길의 벚꽃은 이번 주부터 꽃망울이 터졌다. 12km 터널을 이룬 벚꽃길은 ‘분홍’ 터널로 뒤덮였다. 축제를 앞둔 강진군은 나들이객이 오기 전 만개한 꽃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3월 30일~4월 2일) 열리는 영암 왕인문화축제 관계자들도 만개한 벚꽃을 축제 기

간까지 볼 수 있을지 조마조마하다. 진달래도 예년보다 빨리 꽃망울을 터트렸다. 여수 영취산진달래축제는 오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열린다. 하지만 영취산 아래쪽으로는 대부분 진달래가 만개했고 위쪽도 80~90% 꽃을 피웠다. 3월 말~4월 초는 나주 배꽃을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나주시는 그러나 배꽃대향연(4월 8일~9일)을 준비하면서 바람 때문에 배꽃이 떨어질까 날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평년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 일정을 잡았는데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산강변 유채꽃밭도 절정의 노란 물결을 이룬 상태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축제일에 맞춰 영산강변 유채꽃~금성산 한수재 벚꽃길~금천면 배박물관 일대 배꽃 과수원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하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꽃이 시들까 속을 졸이고 있다. 그나마 신안 선도에서 열리는 수선화축제(3월 30일~4월 9일)는 개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관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서 시민들이 만개한 벚꽃을 보며 봄날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계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30~40%의 개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축제장에 심는 시기에 맞춰 개화 시기를 대략 조정할 수 있어 행사 시기에 맞춰

만개한 수선화를 볼 수 있다는 게 행사장 관계자 설명이다. 4월 7일부터 16일까지 톨립 축제 기간에 맞춰

선보이는 톨립도 개화 시기가 다소 여유롭다는 게 신안군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비정규직노조 31일 총파업 예고

시·도 교육청, 급식·돌봄교실 등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분주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학교 급식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학비노조가 임금 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비상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체 급식, 간편식 제공, 개인 도시락 지참 등 학교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광주 254개 초·중·고교에는 노조원(교육 공무원) 43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79명

(36%)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다. 파업 참가 인원이 많을 경우 대규모 급식자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돌봄교실, 특수교육을 포함해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학부모, 학생에게 알리고 학교 자체 대책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도교육청도 파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파업 단계별 조치사항과 세부 대응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 학생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분야에 집중해 대응 방안을 세웠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매주 집단 임금 교섭을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대표교섭은 대구교육청이 맡고 있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근속수당 인상, 기본급 5만5840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측은 기본급 3만8000원 인상, 근속수당 동결, 맞춤형 복지비 10만원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며 “파업으로 인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박진 장관, 광주서 ‘강제동원 정부안’ 설명

내달 1일 방문…양금덕 할머니는 만남 거부

정부 관계자들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제3자 변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1일 광주로 향한다.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박진 외교부장관 등을 만나 설명은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만남을 거부했다.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소송 대리인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장관은 4월 1일 오후 1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택을 찾아 면담을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 할아버지를 만나 ‘제3변제’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할아버지 대리인단은 “설명을 하는 자리 자체는 거부하지 않겠다”면서 이후 오후 2시 이 할아버지의 자택 인근인 수량어린이공원 입구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27일께 양금덕 할머니 대리인 단에도 만남을 요청했지만, 양 할머니와 대리인

단은 만남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할머니 지원단체인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 장관과 만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미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박 장관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장,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까지 광주에 내려와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닐 만큼 한가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한국이 뒤집어 쓰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피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럴 시간에 일본을 향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서구 ‘새봄 힐링음악회’ 31일 광천동 광암교 인근

광주 서구청은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동천동·유덕동 등 광주전변에서 ‘새봄 힐링음악회’를 연다고 밝혔다. 주 공연은 광천동 광암교 하부 잔디밭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31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다. 가수 변진섭이 무대에 올라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곡을 부르며, ‘무시드’의 전자현악 공연, ‘다락’의 뮤지컬 갈라쇼, ‘디 블루 이어즈’의 색소폰 공연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광천동, 동천동, 유덕동에 소무대를 설치하고 각 동별 주민 단체공연,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무대 공연은 31일과 내달 1일 양일 간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된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31일에는 광암교하부·동천동 징검다리 간 왕복 2.4km구간에서 ‘한걸음 더 걷기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무대 주변에서는 벚꽃 소재 소품·액자만 들기, 노르딕워킹 등 체험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천연로 함미 배합향료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